

Books

신간소개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카스트로 - 아바나 선언

피델 카스트로 (지은이) 강문구 (옮김)

출판사: 프레시안북

출판일: 2010-02-12

ISBN(13): 9788901105796

168쪽 | 223*152mm

「REVOLUTIONS」시리즈의 제6권인 이 책은 시대적·사상적·정치적·종교적 흐름에서 풍부하게 해석되는 쿠바의 혁명가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불꽃같았던 순간에 쏟아낸 글을 엄선하여 엮은 것이다. 독재정권의 폭압뿐 아니라, 미국의 야욕

에 맞선 게릴라 전쟁에서 '다윗의 일격'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전세계를 놀라게 한 카스트로의 숨결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쿠바혁명이 혁명을 일으킨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제1, 2차 아바나 선언문을 통해 살펴본다.

카스트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천명하는 제1차 아바나 선언문에서 쿠바혁명의 의미를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제2차 아바나 선언문은 쿠바 지도부가 미국 기업을 몰수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도 단절하여 '피그 만 침공' 사건을 발생했을 때 발표된다. 카스트로는 이 선언문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보여주면서 혁명 주도세력들을 통합해나간다. 이번 책에 수록된 카스트로의 세 명문은, 외부의 복잡한 상황들을 거치며 일어난 혁명의 노선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혁명의 뜨거운 열기, 새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호세 무히카 조용한 혁명

마우리시오 라부페티 (지은이) 박채연 (옮긴이)

출판사: 부키

출판일: 2016-02-12

ISBN(13): 9788960515086

336쪽 | 218*148mm

정치인과 지도자로서의 호세 무히카의 모습을 집중 탐구한 첫 책으로, 현직 기자인 저자가 소박한 인간적인 면모를 넘어 대통령인 그의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해냈다. 그가 시도한 정책들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현실의 벽, 대통령의 고민과 열

정, 성공과 실패를 통해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지,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한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며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무히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우루과이는 쉬지 않고 성장했다. 국민 소득은 늘고, 빈곤율과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다. 퇴임 당시 그의 지지율은 65퍼센트에 달했으며, 무히카는 2013년과 2014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무히카에게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짧은 날 무기를 든 것도, 그 뒤에 무기를 버리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것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접근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교황에게 달려갔고, 반제국주의자였지만 오바마의 동맹이 되었다. 마리화나·동성 결혼·낙태 합법화와 시리아 난민과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받아들이는 선구적 정책으로 자유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 과정에는 늘 진심 어린 설득과 소통이 함께했다. 이념적이지도, 교조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삶을 더 낮게 바꾸려는 무히카의 이런 노력을 저자는 ‘조용한 혁명’이라 부른다. 대통령답지 않은 소탈한 생활, 진솔한 소통, 선구적인 정책은 지도자의 참된 모습을 밝혀준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지도를 들고 떠나는 시간여행자의 아메리카사

장 셸리에 (지은이) 임영신 (옮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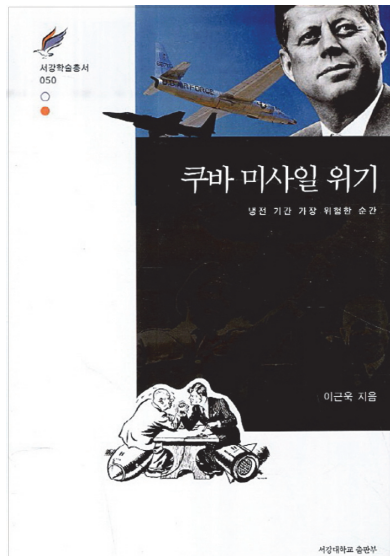
출판사: 청어람미디어

출판일: 2016-02-17

ISBN(13): 9791158710170

192쪽 | 210*275mm

이 책은 시대에 따라 국가가 어떻게 확장·통합·세분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탐구한다. 북아메리카의 독립부터 19~20세기 앤틸리스제도와 기아나,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지역을 아울러 36개국의 역사를 다룬다. 인디언 원주민, 유럽 식민지 개척자, 아프리카노예 등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신세계에 남긴 발자취를 63점의 지도로 설명하여 현재로 이어지는 아메리카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쿠바 미사일 위기: 냉전 기간 가장 위험한 순간

이근욱 (지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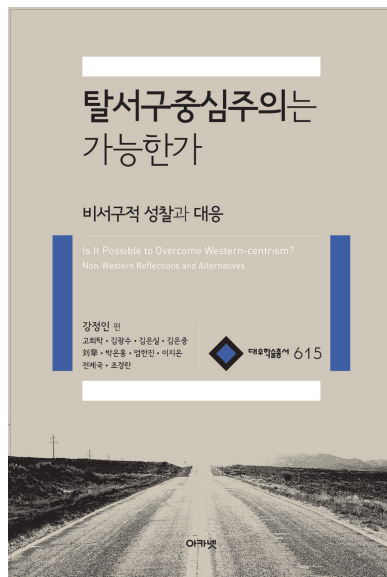
출판사: 서강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3-02-21

ISBN(13): 9788972732242

294쪽 | 148*210mm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이해와 위기의 발생 원인과 왜, 그리고 어떻게 위기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탈서구중심주의는 가능한가: 비서구적 성찰과 대응

강정인, 고희탁, 김광수, 김은실, 김은중, 류칭, 박은홍, 엄한진, 이지은, 전제국, 조경란 (지은이)

출판사: 아카넷

출판일: 2016-06-20

ISBN(13): 9788957334966

492쪽 | 152 * 224 mm

이 책은 멀리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랍 지역부터 러시아, 인도, 동남아를 거쳐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까지 포함한 여러 문명과 지역들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다채로운 성찰과 대응을 다룬다. 정치적·

경제적·군사적 대응보다는 사상적·문화적 대응을 다루고 있는데, 서구문명의 문화적 지배는 서구문명이 보유한 강력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서구의 입장에서 서구의 문화적 지배와 그것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그러한 힘과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동아시아를 군림해온 중화주의는 서구의 충격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붕괴하고 현대 한국 사회는 서구적인 것의 보편성과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서구는 서구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배와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편, 문화적 자주성과 사상적 주체성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서구문명의 전일적 지배를 종식시키고 비서구문명들의 평등한 참여와 인정을 열망하는 ‘해방의 의지’를 보존·확충·심화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과 문명에서 출현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복잡다기한 대응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공 분야, 접근방식, 학문적 관심들 역시 다채롭기 때문에 ‘제3세계주의’부터 ‘역오리엔탈리즘’까지 연구 대상의 시기나 소재도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필자들은 서구중심주의와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비서구지역의 다양한 대응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살바도르 아옌데: 혁명적 민주주의자

빅터 파게로아 클라크 (지은이) 정인환 (옮긴이)

출판사: 서해문집

출판일: 2016-05-06

ISBN(13): 9788974837891

288쪽 | 140*210mm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출범시킨 칠레 아옌데 대통령을 단독으로 다룬 평전이다. 아옌데의 집안 배경에서부터 의대생으로 민중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시기, 본격적

인 정치인으로서의 도전과 좌절, 극복의 순간,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프리메이슨 활동과 연애편계, 취미활동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아옌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칠레의 근현대사와 아옌데 활동 당시의 주변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을 더해 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더불어 그가 칠레와 라틴아메리카, 세계에 남긴 유산을 점검해보면서 아옌데와 인민연합 정권의 사상 초유의 정치적 시도가 오늘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과 마주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찬찬히 짚어본다.

3년이라는 짧은 집권 기간 동안 아옌데 정부가 남긴 유산은 적지 않다. 구리산업 국유화, 토지개혁,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외교노선, 획기적인 복지정책 등 아옌데는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아옌데는 평생을 사회변혁과 자본주의 체제 탈피를 꿈꾸었다. 그는 적대세력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싶어 했고, 다른 나라의 혁명 과정이 치른 혹독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그의 노력은 이후 어디에선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인민에게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가 오늘날 전 세계 진보와 좌파 세력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본다.